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7

JCCT 2022-3-2

간호 대학생이 실습 중 관찰한 죽음의 의미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of Death Obser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김미화*, 이은수**

Mi-Hwa Kim*, Eun-Su Lee**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서 준행하는 실습을 이수한 간호대학 4학년에게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해 보는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라북도 K시 일개 대학 4학년의 학생으로 죽음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갖춘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죽음과 관련된 논문을 읽고, 병원 실습을 1004시간 이수한 학생으로 질문에 대해 80시간 내에 면담과 자기 보고서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죽음과 관련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3개 범주, 9개 주제 30개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3개의 범주는 '끝, 그리고 함께하다', '죽음, 혼자와의싸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에게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규간호사들이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프로그래밍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질적 연구, 죽음, 병원실습

Abstract The purpose is a qualitative study that explores the essential meaning of death for fourth-year students of nursing college who have completed the practical training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 students who were 4th graders at a university in M city, Jeollabuk-do and had a strong awareness of death. As for data collection, students who read a thesis related to death and completed 1004 hours of hospital practice were asked to write a self-report within 72 hours for question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Krippendorff'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erience related to death, it was derived into 30 meaningful statements in 3 categories, 9 topics. The three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end and together', 'death, fighting alone,' and 'fear and fear'.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rofessional understanding of death in nursing students and coping with the stress of death faced by new nurses.

Key words : Nursing Student, Qualitative Research, Death, Hospital Practice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인간에게 죽음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1]. 인간에게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직면해야 할 문제이고, 죽음을 생물학적, 자연적 현상뿐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2]. 이렇듯, 죽음은 불가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1].

간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전공지식과 임상

*정회원, 영남외국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1월 24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November 24, 2021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eslss@duh.ac.kr

Dept. of Nursing, YungNam Foreign Language College, Korea

실습을 병행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다[3].

이런 간호학은 인간의 전 생애를 간호를 하는 직종으로 이를 선택한 간호학도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깊은 공감과 죽음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4]. 국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의 86%가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며[5], 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혼동, 피로, 공포, 슬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6]. 이는, 실습을 하면서 많은 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두려움은 전인적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1].

간호학교육에서 임상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 비중은 매우 많다 [7]. 또한 간호학생은 정식간호사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임상 실습과 이론 수업을 통해 일반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비해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8].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9], 이후 정식간호사가 되어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 진사정과 진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렇듯 간호학생에 대한 적합한 죽음 교육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임종과 완화간호교육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11]. 따라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본질을 학생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파악하여 보다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위한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12]. 현재 죽음과 관련된 양적연구는 청소년들을 죽음에 대한 태도[13], 비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하는 태도[14],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15] 등의 다수가 있으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대상으로 실습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실제적인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자가 보고서에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 Krippendorff [16]의 현상학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참여자는 전라북도 K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간호학과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간호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하는 병원실습을 완료한 학생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15명으로 학생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1명 여학생 14명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3-25세로 평균 23.25세이었다. 연구 시작 전 이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해주었다. 연구 중 알게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즉시 폐기처분 될 것을 설명하였다. 이후 자발적 참여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 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습 중 죽음을 목격하고 이를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록에 관해서는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48시간 내에 질문을 확인하고 면담과 자가 보고서로 형식을 하였다.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질문은 “실습 중 환자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중환자실을 실습하면서 죽음을 목격한 학생으로 사후의 세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죽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고, 자료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Krippendorff[1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문내용은 개방형의 형식을 둔 “실습 중 환자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이다. 죽음에 관해 느낌과 경험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질문의 내용을 A4용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필사된 내용을 정독하면서 반복하여 읽었으며, 질문 내용과 나타난 주제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내용을 추출하였다. 이를 비슷한 내용끼리 추출하고 다시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 하고 유사한 것끼리 묶고 이를 개념화 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다시 범주화 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4. 연구의질 확보

본 연구에서 Lincoln과 Guba[17]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중립성(neutrality), 적용성(applicability)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의 기준을 고려하였다. 이에 네 가지의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을 위해서는 연구자는 편견이 발견될 경우 판단중지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절차를 철저하고 성실히 작성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 자료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심도 깊게 수집하고 내용을 포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평소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을 때 수긍하는 공감을 확인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호학생들에게 죽음과 관련하여 사전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을 높이기 위해 연구 설계에서 부터 죽음과 관련 논문을 내용을 기록까지 질적 연구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수님 1명과 논의 하였고, 기록내용에 의미 있는 주제 모음과 범주화 하는데 가장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기까지 수정 보완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강하였으며, 질적 학회 활동에 참여 중이며, 평소 현상에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간호연구를 이수한 학생으로 연구경험 다수 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임상현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 대처능력을 확립을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Krippendorff[16]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심도 깊게 분석하면서 유사한 것끼리 묶었으며, 내용의 정도에 따라 주제를 추상적이며 통합적인 의미로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3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즉, 3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15개의 주제, 30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이는 ‘끝, 그리고 함께하다’, ‘죽음, 혼자와의싸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범주 1: 끝, 그리고 함께하다.

‘간호, 그들과 함께하다’, ‘쉽과 만남’, ‘죽음의 경계’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해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간호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의미의 간호로 생각하는 모습에 많은 것을 시사 한 점이였다.

1) 주제 1: 간호, 그들과 함께하다.

환자와 가족에게 그리고 간호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참여자 4)

황달 증세로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데, 그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참여자 2)

단순히 내 가족 아니어서,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이 여기까지인가보다 하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할까? 아직 경험해 보지도 않은 현실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10)

그냥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 안보고 편하게 우시라고 커튼만 쳐주는 것 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최고의 간호인 것 같던데요. (참여자 7)

2) 주제 2: 쉽과 만남

이제는 꼭 쉬고 조금 있다가 만나러 갈게 그땐 우리 아프지 말자라는 말이 슬픈 말인데 위안을 느꼈어요. (참여자 2)

분명 우울했는데...밖은 너무나 날씨가 밝아서 우울감이 느껴졌어요. (참여자 5)

슬퍼하시는 보호자 분들을 보니 내가 언제 죽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해서 당장 그런 일이 닥칠 때 조금이나마 덜 상처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준비하게요. (대상자 13)

3) 주제 3: 죽음의 경계

마지막 환자를 보내면서 그분이 쓴 이불을 간호조무사와 교체하는데... (참여자 1)

환자분의 얼굴을 가리고 이불을 덮어버리고 침상을 옮기던 모습이 기억에 잊히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의 순간보다 이때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생무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참여자 15)

그냥 그 순간 저의 감정은 모든 게 무념무상인 느낌이

가장 맞는 거 같습니다. (참여자 12)

범주 2: 죽음. 혼자와의 싸움

죽음, 혼자와의 싸움에서는 ‘죽음 혼자와의 싸움’, ‘무더짐’, ‘마지막 혼자 길’,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목격하는 죽음에 대해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죽음 혼자와의 싸움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혼자서 무서웠고, ICU 선배님이 사람의 목숨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2)

오랜 투병기간을 함께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환자의 모습도...그저 혼자구나 싫어요. (참여자 1)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혼자구나 하는 생각... (참여자 12)

2) 주제 2: 무더짐

아무래도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DNR을 보면서 점점 무더질 것 같고, 그런 제 자신이 미웠어요. (참여자 2)

안 돌아가셨으면 하고 피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 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두 번째 목격을 했을 때는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서 기분이 슬픈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했어요. (참여자 5)

3) 주제 3: 마지막 혼자 길

쭉쭉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료인들은 덤덤했고, 나도 그랬고, 임상에서 혼자 의료기기에 의지하며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봤는데,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셨는지,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6)

그 환자분의 보호자가 오시긴 했지만, 보호자도 덤덤하신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모든 게 그렇게 혼자구나... 싫었어요. (참여자 9)

범주 3: 무서움과 두려움

무서움과 두려움에서는 ‘무서움과 두려움’, ‘찰나의 순간’, ‘또 다른 문’으로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죽음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가벼운 그리고 아주 넘나들기 쉬운 것이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 주제 1: 무서움과 두려움

혼자서 갑자기 무서웠어요. (참여자 2)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갑자기 무섭고 두려움 감정이 들었어요. (참여자 7)

막상 겪어보니 너무 놀랐고, 무서움을 느꼈어요. (참여자 4)

두 번째 목격을 했을 때는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서 기분이 슬픈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짝이 오싹했어요. (참여자 8)

숨을 거두신 환자분을 본 적도 없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시체를 확인한 것이 처음이었기에 너무 무서웠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참여자 14)

죽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온다고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며, 할머니처럼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답답하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참여자 11)

2) 주제 2: 찰나의 순간

불과 몇 초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한 사람, 평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 운명이구나...생각하니 무서움이... (참여자 6)

단 몇 초에 순간은 환자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여자 13)

CPR 시행 후 하얀 천에 덮여 환자가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아 진짜 죽으면 저렇게 실려 나가는구나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 같다. (참여자 8)

3) 주제 3: 또 다른 문

나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여자 4)

나에게 지금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살릴 수 있을까? 란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 제 자신을

같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1)

또 한편으론 죽음은 알 수 없으니 미리미리 주변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후회 남지 않게 사랑을 표현하고 잘하자 라는 다짐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1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을 실습을 하면서 관찰한 것을 질적 내용으로 분석한 것으로 임상에서 직면하게 될 죽음 현상에 올바른 태도와 남은 가족간호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본질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습을 통해 죽음을 관찰한 학생에게 면담과 자가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 30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도출되었다. 이는 ‘끝, 그리고 함께하다.’ ‘죽음, 혼자와의 싸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현장을 시작하면서 죽음을 처음 관찰하게 되었고, 시체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습이 거듭될수록 태연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무서움에 극복보다는 죽음의 대한 옳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또 다시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끝, 그리고 함께하다’는 ‘간호, 그들과 함께하다’, ‘쉽과 만남’, ‘죽음의 경계’로 구성되었다. 이는 환자의 죽음이 의료진과 상호작용 속에서 삶을 마무리 할 것을 연구한 Lee[18]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Kwon[19] 연구와 같이 임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질 좋은 간호를 행하는데 기초감정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죽음, 혼자와의 싸움’은 ‘죽음 혼자와의 싸움’, ‘무더짐’ ‘마지막 혼자만의 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외 연구 Cooper & Barnett,[20]중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의 죽음의 상황에서 무력해 지는 느낌을 경험을 연구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실습을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임상실습 중 대처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무서움과 두려움’은 ‘무서움과 두려움’, ‘찰나의

순간’, ‘또 다른 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내 학생의 경우 공포를 느낀다는 Park[21,22]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예비 의료인이 될 간호학생들에게 죽음이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되게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를 행함에 부정적인 개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학생들에게 임종간호학을 더욱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수업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좋은 간호는 인간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 하는데 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이러한 공감은 인간의 이해를 파악해야 하며, 인간의 이해와 공감의 형성은 인문학이 강조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임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대해 유연성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Edo-Gual, M., Tomás-Sábado, J., Bardallo-Porras, D., & Monforte-Royo, C. (2014). The impact of death and dying on nursing students: An explanatory model.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 3501-3512. <https://doi.org/10.1111/jocn.12602>
- [2] Kim Yeong-Kyeong, Jo Kae-Hwa, Kim Myoung-Ja (2005).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Art Work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7 (4), 602-611.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9). Accreditation manual with interpretive guidelines for four-year nursing programs. Retrieved from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4.php>
- [4] Lee, M. J., & Lee, J. S. (2015). Nurses' experience of the death of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5(4), 513-522. <https://doi.org/10.4040/jkan.2015.45.4.513>
- [5] Park, Y. S., & Kim, J. H. (2017). Influence of attitude to death and resilience on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1), 37-47.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37>
- [6] Ek, K., Westin, L., Pahl, C., Österlind, J., Strang, S., Bergh, I., et al. (2014).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Exploring first-year nursing students' descriptive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20(10), 509-515.

- <https://doi.org/10.12968/ijpn.2014.20.10.509>
- [7] Kang, H. J. & Choe, H. J. (2020).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Patient Death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1), 56-66.
- [8] Jung, S. Y., & Lee, E. K., Kim, B. H. Park, J., Han, M. K, Kim, I K.(2011).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68-177.
- [9] Ali, W. G. M., & Ayoub, N. S. (2010). Nurse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dying patients in Mansour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s*, 16-23.
- [10] Seo, H. E. & Kim, M. Y.(2016). Operation Room Nurses Ethical Value regarding Their Attitude and Meaning of Life about Organ Transplantation in Brain Death.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8(4), 355-366.
- [11] Lee, H. J. (2013).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19)2, 88-95.
- [12] Kim, E, H & Oak, Y, H, Kim, Y.E. (2021). Meaning of the First Death Fa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Based on Nurses' Perspectives. *The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22(1),11-20.
- [13] Sook. K C & Kim, C.K.(1991). A Relational Study on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alues of Juvenile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8(2), 61-73.
- [14] Range, L. M., & Rotherham, A. L. (2010). Moral distress among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17(2), 225-232.
- [15] Han, J. Y., & Lee, N. Y. (2009).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9(2), 95-103.
- [16] Krippendorff, K. 2003.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17]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18] Lee, G. J., Hwang, K. H., Ra, J. R., Hong, J. A., & Park, C. S. (2006).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The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Training in Hospice & Palliative Care*, 10, 23-39.
- [19] Kwon, M. S., & Hong, J. Y. (2019).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knowledge, attitude for advanced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825-843.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3.825>
- [20] Cooper, J., & Barnett, M. (2005). Aspects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which cause anxiety to first year student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11(8), 423-430
- [21] Park, S. H., Jee, Y., Kim, S. H., & Kim, Y. (2014).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s of death.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17(3), 161-169. <https://doi.org/10.14475/kjhp.c.2014.17.3.161>
- [22] Park, H. J & Yang, H. J. Byun. E.K. (2021). Effect of good death cognition, self 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3), 71-78.

표 1. 간호 대학생이 실습 중 관찰한 죽음의 의미고찰

Table 1. A Study on the meaning of Death Obser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category	theme	sub-theme	
End, and together.	Nursing, with them	An essential part of care for patients, families and care	
		Jaundice causes the pupils to turn yellow, and they do it together.	
		another family not mine	
		stay together quietly	
	rest and meeting	I am sad to say that I am going to see you in a little while after taking.	
		a good rest, but it was comforting.	
		What will happen to someone and a new meeting	
	border of death	Bedding being cleaned as we send our last patient out	
		The moment you cover the duvet	
		At that moment, my feelings are all indifferent	
Death. fight alone	fight death alone	The fear of being alone and nothing	
		And the patient's appearance... I just want to be alone.	
		Everything is futile and disappointing. In the end, I think I'm alone.....	
	dullness	I think I'm going to get dull while watching the patients' DNR in the hospital...	
		I wanted him not to come back, so I avoided it... but it seems to get duller as time goes by.	
		Complex emotions are mixed, so the feeling is something that is not sad	
	the last lonely road	I felt bitter. The medical staff were rude, and so was I. feeling lonely	
		dullness. everything so alone	
	Fear and fear	fear and fear	suddenly scared of being alone
			It's something everyone can't avoid, but suddenly feeling scared and afraid
I was really surprised and scared			
Sad and creepy, mixed with many thoughts and complex emotions			
corpse for the first time			
Death and fear that approaches everyone			
Charlie's Moment		The fate of those who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moment	
		just a few seconds	
		covered with white cloth	
another door		something that will happen to me someday	
		The giver of a new life to someone	
		unknown place and eternity	